

석사학위 논문

李匡贊의 批評 研究

유 정 열

2011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희병 선생님

본고는 중옹(中翁) 이광찬(李匡贊, 1702~1766)의 비평 성과가 잘 정리되어 있는 '평두남'(評斗南)을 주 텍스트로 삼아 그 비평을 고찰하고, 나아가 그 비평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광찬은 1755년 을해옥사(乙亥獄事)에 연루되어 함경도 명천(明川)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역시 같은 죄목으로 근처 부령(富寧)에서 유배 중이던 종제(從弟)인 원교(員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비평을 했는데, '평두남'은 이때 이루어진 성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제II장에서는 이광찬이 남긴 비평자료들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수행했다. 그리하여 '평두남'에 작품내용의 시비를 따진 평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이유가 논변적 성격을 띤 작품을 많이 비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및 이광찬은 본래 '평두남'에 수록된 평어의 수보다 더 많은 작품을 비평했었다는 사실 등을 밝혔다.

제III장에서는 '평두남'의 성립과정 및 비평형식의 연원을 고찰해 보았다. '평두남'은 을해옥사를 겪기 이전부터 맺고 있었던 두 사람의 유난히 돈독했던 관계가 유배 이후에도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탄생된 것이었다. 그리고 '평두남'의 비평형식은 기본적으로 평점비평의 형식에 연원을 둔 것이었다. 아울러 발문의 형식도 '평두남' 비평의 성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IV장에서는 '평두남' 비평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평두남'의 평어는 비평의 대상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과 '작가에 대한 평'으로 나눌 수 있다. '작가에 대한 평'에서는 먼저 이광찬이 자신의 미적 기준에 의거해 작품의 묘사, 표현, 형식 등에 대해 평가를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유배체험의 공유를 기반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이광사가 처한 현실에 대해 공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된 작품 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간결성, 의미의 명료성, 문맥에 맞느냐에 여부, 사실과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의거해 첨삭을 권유하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것이 훗날 이광사의 문집인 '두남집(斗南集)과 '원교집선(圓嶠集選)에 수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작가에 대한 평'에서는 먼저 이광찬이 자신의 재주에 대한 자부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재주를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이광사의 인간적 면모를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작품 속에서 은연중 드러난 이광사의 교만함을 단호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위협한 시국에 처한 죄인으로서의 처지를 고려해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던 것을 확인했다.

제V장에서는 '평두남' 비평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지향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엄화취실(嚴華就實)이라는 가치에 의거해, 문학 방법에서는 교묘함을 자제하고 평이함을 추구해야 함을, 상황함을 자제하고 핵심을 전달하는 데 치중해야 함을 요구했다. 또한 삶의 방법에서는 자신의 재주를 과시하기보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함을, 죄인으로서 한가롭고 편안함을 말하기보다는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음으로는 '적실성(適實性)이라는 가치를 강조했는데, 이광찬은 독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지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으로는 인물을 대상으로 글을 지을 때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사실에 의거한 엄정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격한 비판을 일삼는 이광사의

태도를 경계했다. 평소 스승과 같은 입장에서 이광사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주곤 했던 것처럼, 이광찬은 명대(明代) 고문사파(古文辭派)를 극렬히 비판하는 이광사의 태도를 자제시키고 비판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려 했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평두남'의 비평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평두남'이 18세기 동시대인 간에 활발한 실제비평이 이루어졌던 흐름 속에서 탄생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평두남'은 지친이라는 관계 속에서 형님에 대한 존경과 동생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평자가 작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는 의식이 작용하여 이룩된 비평임을 밝혔다. 아울러 '평두남'은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비평에 반영함으로써, 전에 보기 어려운 비평을 탄생시키기도 했다.